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 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 지역별 성모의 밤

일자	5월20일(목)	5월24일(월)
지역	3지역	4지역

- 저녁 7시부터 묵주기도 후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 미사 봉헌합니다.

◎ 알 림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홍보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주(5월 23일) 헌미헌금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공휴일(5월 19일:수)은 사무실 휴무입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5/16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05/23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성물방 판매 시간 및 신간 안내

- 판매시간 : 주일 10:00~13:00
- 신간안내 : “모든 형제들”(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기도”(새 생명의 숨결)
- 신 상 품 : 어린이 ‘은’ 묵주반지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서울대교구 거주미사 본당 전출

- 2016년 01월 01일 이전 영세자 중 교무금/판공 성사/병자성사/봉성체 등의 기록이 없으신 신자 본은 서울대교구 거주미사 본당으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05/2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03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5월05일 ~ 05월11일)

• 교 무 금		8,746,000원
• 주일헌금		3,916,000원
• 시설헌금	김명순30만원	
• 감사헌금	정효빈20만원	유OO10만원 조은서30만원
	김수자10만원	황채린 5만원 심봉구10만원
	구OO10만원	김순애10만원 전을경 5만원
	정완조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5/16	유명진	심재순 신종구	최웅조 김강자
05/23	손진희	오성환 최상림	김덕영 김명선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19:00
05/16	장인홍	최승일	최창열 황태영	박승환	김인기
05/23	최상남	최창열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박승환

공동 향로 없는 세계화와 진보

29.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과 저는 특히 선진국들의 과학, 기술, 의학, 산업, 복지 분야에서 이룬 긍정적인 진보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체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역사적 발전과 더불어, 도덕의식이 저하되어 국제적 차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책임감도 약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반적으로 좌절과 고립과 절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 어떤 지역들은 긴장이 고조되고 무기와 군수품을 축적하면서 새로운 분쟁의 장이 될 기미가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비관과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해타산에 따라 좌우되는 전 세계적 상황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 강력한 정치 위기들, 불의의 상황, 천연자원의 불공평한 분배 …… 가난과 굶주림으로 수백만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 간 그러한 위기들에 직면하여, 국제적으로 침묵만 지키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많은 발전이 우리를 매료시켰지만, 이러한 광경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인간다운 향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30. 현대 세계에서는 한 인류라는 소속감이 약화되고, 정의와 평화를 함께 건설하려는 꿈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향으로 여겨집니다. 안이하고 냉담하며 세계화된 무관심이 어떻게 지배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깊은 환멸에서 비롯되는데, 그 환멸은 우리가 전능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잊은 환상의 기만 뒤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위대한 형제적 가치를 뒷전에 내팽개친 이러한 환멸이 “일종의 냉소주의로 이끍니다. 이 환멸이나 실망의 길을 간다면 냉소주의의 유혹이 우리 앞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 고립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이익에만 갇혀 있는 것은 결코 희망을 되찾고 쇄신을 가져오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만남의 문화가 희망과 쇄신의 길입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립의 문화가 아닙니다. 만남의 문화입니다.”

31. 공동 향로 없이 내달리는 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자기 행복에 대한 집착과 인류 공동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 억지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과, 발견하고 일구어야 할 공동생활의 씨앗이 지닌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 혁신의 성장에 어울리는 더욱더 큰 평등과 사회적 포용이 수반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새로운 행성들을 발견하는 한편 나의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다시 발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